

研究論文

〈용궁부연록〉의 환상 체험 연구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고전소설 전공

limch@aks.ac.kr

I. 머리말

II. 〈용궁부연록〉에 드러난 용궁의 특성

III. 〈용궁부연록〉의 환상 체험과 의미

IV. 맺음말

I. 머리말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더 이상 언급 할 내용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다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금오신화』 전체의 주지를 하나로 볼 수 없을까 해서이다. 필자는 『금오신화』 자체가 김시습이 환상 체험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지은 후 석실(石室)에 감추면서 ‘후세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안에 자신이 깨닫고 느낀 사실들을 담아두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미 『금오신화』 가운데 〈만복사저포기〉를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본 적이 있다. 심각하게 논문을 쓰거나 학술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전소설을 쉽게 풀어쓰기 위한 자리에서였다.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양생이 만나고 싶어 하던 여인을 만났으나, 그 여인은 이미 죽은 몸으로 귀신이었다. 그러나 양생은 짐짓 모른 척하며 그 여인과 함께하며 행복해한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래도 양생은 여인을 위하여 재를 올리는 등 마음을 다한다. 그 정성 때문인지 여인은 다른 나라의 남자로 환생하고, 양생은 세상을 등진다.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굳이 요약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궁급하게 생각한 것은 왜 여인이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남자로 환생하는가 하는 점과 양생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가 하는 점이었다. 작품 전개 과정에서 여인은 양생이 원하고 사랑하던 존재였다. 귀신이였기에 현실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인이 다른 나라에서 환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만남과 결연의 가능성이 아주 차단되지는 않았기에 희망은 있다. 특히 원래 그대로의 여성의 모습으로 환생하였다면 희망을 가지고 찾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인은 남자로 태어났다. 결국 양생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저곳에서조차

차 영원히 여인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양생의 행복은 귀신과의 환상 체험에서나 가능하였던 것이다. 현실에서 그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다. 환상은 깨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환상 체험 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양생으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것이 『금오신화』 전체를 관류하는 주제 의식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다.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고전소설을 쉽게 풀어쓰는 자리에서 이러한 생각을 펼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단종이었다. 이미 죽은 단종(귀신), 그(귀신)를 만나 행복하고 싶었던 김시습, 그를 향한 한결 같은 마음(재를 올림),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 바로 김시습은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환상 체험을 하였기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정확하게 안 것이다. 양생이 방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김시습 자신의 투영이었던 것이다.

『금오신화』의 모든 작품은 주인공의 환상 체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상 체험은 ‘귀신’, ‘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금오신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김시습은 환상 체험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환상 체험이 김시습의 의식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금오신화』를 김시습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환상 체험보다는 『금오신화』가 가지고 있는 저항적·사회적 의식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다.¹⁾ 따라서 이 글의 문제 제기는 『금오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김시습 개인에 집중할 때 자신이 참을 수 없었던, 또는 참아야만 했던 현실 속에서 살아나간 가장 치열한 인간의 모습을

1) 이에 대한 기존 논의와 그에 대한 정리는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김문당, 1993), 106-115쪽에 잘 되어 있다. 여기에서 박일용도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정전〉을 중심으로 『금오신화』의 현실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환상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찾을 수 있다. 이월영, 「초현실체험 분석을 통한 『금오신화』 연구」, 『국어국문학』 109(1993);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6(2003).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금오신화』 가운데에서 〈용궁부연록〉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보기로 하겠다.

II. 〈용궁부연록〉에 드러난 용궁의 특성

필자가 『금오신화』 가운데에서 〈용궁부연록〉²⁾을 택한 이유는 기존의 논의에서 김시습과 관련하여 이 작품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연구는 대체로 〈용궁부연록〉이 세종, 단종과 김시습의 관계를 우의한 것이라고 보았으며³⁾, 그 후 〈용궁부연록〉을 김시습이 세종 때 입궁하였던 체험을 그려낸 것, 자신의 문재(文才)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 것, 세조 정변 후의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였다.⁴⁾ 그동안 〈용궁부연록〉이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에 비하여 다소 주목을 덜 받은 이유도 이 작품이 김시습과의 관련성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보아 별반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앞선 판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하지만 김시습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작품의 질이나 의미가 퇴색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작가가 자신의 의식과 모습을 어떻게 형상화하였으며, 그 방식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작업은 유의미할 수 있다.

〈용궁부연록〉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 어려서부터 문장을 잘하여 조정에까지 알려진 한생이라는 인물이 있다.
- 2) 문장으로 용궁의 초대를 받아 공주의 거처에 상량문을 지어준다.
- 3) 용왕은 그 사례로 잔치를 연다.

2) 텍스트는 197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출간한 『金鰲新話』로 한다.

3) 박성의, 『韓國古代小說論과 史』(예그린출판사, 1978), 166쪽. 특히 이가원은 한생이 김시습이라고 지적하며 도표로 그 상관성을 드러냈다(이가원, 「『금오신화』 해제」, 『역주 금오신화』, 통문관, 1959, 27쪽).

4) 설중환, 『金鰲新話研究』(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181-193쪽; 한영환, 「금오신화의 비교문학적 고찰」(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4), 195쪽에는 〈용궁부연록〉이 자서전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소계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학술논총』,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152쪽) 대체로 〈용궁부연록〉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4) 한생이 용궁을 둘러본다.
- 5)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받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명리를 버리고 산에 들어간다.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여타의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이 폭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용궁부연록〉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쾌한 모습을 보인다.⁵⁾ 이에 대하여 인생이 즐거우리라는 환상은 곧 깨질 수밖에 없다는 ‘흥진비래(興盡悲來)의 정서’를 바탕으로 ‘초월’이라는 불가지의 대안을 내놓은 것은 아이러니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⁶⁾ 〈용궁부연록〉에서 ‘흥진비래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용궁에서의 경험과 세상을 등지는 결말이 어색함을 지적한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기존의 논의는 〈용궁부연록〉에 드러나고 있는 ‘용궁에서의 상황’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⁷⁾ 그런데 정말 한생은 ‘용궁에서의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꼈을까?

〈용궁부연록〉에서 필자가 애초에 주목하고, 나아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한생이 용궁에서 받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는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었다. 용궁에서 그렇게 잘 대접받고 잘 구경하고 왔으면서 왜 세상을 등졌을까?

〈용궁부연록〉에 묘사된 용궁은 매우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이다.

天字晃朗 無山石巖崖 但見世界平闊如碁局 可數十里 瓊花琪樹 列植其中 布以金沙 繚以金墉 其廊廡庭除 皆鋪碧琉璃磚 光影相涵(하늘이 맑아지더니 산이나 돌, 절벽 같은 것은 없이, 수십 리에 걸쳐 바둑판처럼 평평하고 넓은 세상이 나타났다. 옥으로 깎은 듯한 꽃과 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고 금빛 모래가 깔려 있으며 금빛 벽이 둘러 있었다. 또 회랑과 정원으로 이어지는 섬들은 모두 푸른 유리로 된 벽돌이 깔려 있어서 광채가 아롱졌다.)⁸⁾

5) 최기숙, 앞의 논문, 9-13쪽. 이해순은 유쾌함 속에 시에 나타나는 정조가 애조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것이 세상 명리를 부정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는 김시습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이해순, 「금오신화」,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집문당, 1990, 26쪽).

6) 윤재근, 「『金鰲新話』의 美的 原理와 反省的 主體」, 『古典文學研究』 14(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8), 162-174쪽.

7) 이는 안창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용궁부연록〉이 용궁에서의 환락을 통하여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인생의 관조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嶺南語文學』 26(영남어문학회 1994), 123-124쪽.

이는 『금오신화』 수록 작품 가운데 또 다른 이계를 설정하고 있는
(남염부주지)의 ‘남염부주’와는 천양지차이다.

其地無草木沙磧 所履非銅則鐵 晝則烈焰巨天 大地融洽 夜則淒風自西 砭人肌骨 咤波不勝 [...] 其中居民 以鐵爲室 晝則焦爛 夜則凍烈 (그곳에는 초목도 없고 모래나 자갈도 없었으며, 발에 밟히는 것은 구리 아니면 쇠였다. 낮에는 거센 불기둥이 하늘까지 뻗쳐 대지가 녹아내렸고, 밤이면 차가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사람의 피부와 뼈속까지 파고드니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쇠로 집을 지어 낮에는 살이 문드러지고, 밤에는 살갓이 얼어 터졌다.)

‘남염부주’의 모습은 주인공 박생이 놀라 뒷걸음치며 머뭇거릴 정도이다. 이렇게 부정적 공간인데도 박생은 현실적 죽음을 통하여 ‘남염부주’로 가서 왕이 된다. 반면 한생은 ‘용궁’을 떠난 후 다시는 가지 않는다. 한 곳은 박생의 지향(指向) 공간이 되고, 다른 한 곳은 한생의 불지향(不指向) 공간이 된 것이다.⁸⁾

만약 용궁이 그렇게 좋은 공간이었다면 용궁에서 생활이 가능하였던 한생은 그곳에 머물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생은 머물지 않았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欲還)’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인간 세상으로 나온다. 자기가 갈 곳이 인간 세상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세상을 등진다. 여기서 한생이 자신은 다른 공간인 용궁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표피적인 해석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생은 현실 속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여야 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한생은 현실 속에서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前朝有韓生者 少而能文 著於朝廷 以文士稱之 (전조에 한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나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문사로 칭송을 받았다.)

8) 번역은 김수연·탁원정·전진아, 『금오신화·전등신화』(미다스북스, 2010)를 참고하여 필자가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9) 용궁을 돌아갈 수 없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한생이 용궁을 지향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갈 수 없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용궁은 한생이 지향하는 공간이 아니다.

잠시 용궁에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이름난 문사로 칭송과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 속 한생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게다가 용궁으로의 초대 역시 현실에서의 명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용궁에서도 한생은 최고의 찬사와 대접을 받는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면 현실에서의 한생의 명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용궁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상을 등졌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용궁을 지향하지 않는 한생이 ‘용궁에서 받은 선물을 지극한 보배(至寶)로 생각하여 깊이 숨기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용궁을 연연해하여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지금까지 필자가 제기한 의문은 ‘용궁에서의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한생은 용궁에도 세상에든 머물지 않았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용궁부연록〉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III. 〈용궁부연록〉의 환상 체험과 의미

〈용궁부연록〉의 한생이 어려서부터 글을 잘했다는 것은 김시습과 통한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한생은 이미 어린이가 아니다. 다 커서, 그것도 문장을 잘한다는 명성으로 인하여 용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용궁부연록〉을 김시습이 어린 추억을 되살려 그때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용궁의 초대를 받은 한생은 머뭇거린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生愕然變色 曰 神人路隔 安能相及 且水府汗漫 波浪相囓 安可利往 (한생이 놀라 얼굴빛이 변하면서 말하였다. “신과 인간은 길이 떨어져 다른데 어찌 서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용궁은 아득히 멀고 파도가 집어 삼킬 듯 거셀 텐데 어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한생에게 용궁은 낯선 곳이다. 하지만 그는 그곳 존재들의 인도를 받아 그곳으로 간다. 문제는 그곳을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점이다. 준비된 말을 타고서야 갈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용궁이 한생과는 멀고도

다른 공간임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공간의 이질성은 입구에서 다시 확인된다.

守門者 皆着彭蜺鰲鰲之甲 (문지기들은 모두 방계나 자라 껍테기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용궁에서 자신의 문재를 발휘하여 공주가 결혼해서 살 새로운 거처에 상량문을 써주고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공주가 결혼해서 살 새로운 거처’에 상량문을 썼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용궁부연록>과 대비되는 『전등신화』 중의 <수궁경회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등신화』와 『금오신화』를 비교할 경우, <용궁부연록>과 <수궁경회록>이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수궁경회록>의 여선문은 광리왕이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는 궁전에 상량문을 써준다. ‘공주의 거처’와 ‘왕의 새로운 정치 터전인 궁궐’에 상량문을 쓰는 행위는 그 경중에서 차이가 난다. 결국 한생은 용궁(궁궐)에 가도 중요한 듯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공주의 거처’ 정도에서 문재를 드러낸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 칭찬과 인정을 받지만 그 정도 수준일 뿐이다.

실제로 <용궁부연록>에서 한생은 오직 문재로만 인정을 받는다.

- 1) 適有文士 在陽界奉邀 諸君勿相疑也 (마침 문사가 있어서 인간 세상에서 맞아 왔으니 여러분들은 의아해하지 마시오.)
- 2) 所乏者 上梁文耳 側聞 秀才名著三韓 才冠百家 故特遠招 (빠진 것은 상량문뿐이다. 듣자니 그대가 이름은 삼한에 드러났고 문재는 여러 사람보다 으뜸이라 하기에 특별히 멀리서 초대한 것이오.)
- 3) 招文士兮製短章 (문사를 초대하여 단장을 짓게 하니.)
- 4) 文士由來席上珍 (문사가 와서 자리의 보배가 되었네.)

1)과 2)는 용왕의 말이고, 3)은 10명의 미희가 부른 노래에서 4)는 낙하의 수신이 부른 노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외에도 한생이 문재로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다.¹⁰⁾ 그리고 그 결과는 흥겨운

10) 한생이 지은 ‘상량문’에 대하여 용왕과 손님인 세 신이 모두 놀라 칭찬하는 부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잔치로 이어진다. 문제로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용궁부연록>에서 이처럼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공주의 거처를 대상으로 문제를 강조한 것은 바로 자각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궁궐의 초대를 받아 자신의 재주를 뽐내고 발휘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자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용왕으로 대표되는 집단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시키면서 그들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선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암시하고 있다.

<용궁부연록>에서 이후 한생은 잔치에 참석한다. <수궁경회록>에는 이 잔치 장면이 빠져 있다. 필자는 <용궁부연록>에서 잔치 장면을 넣은 것이 무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용궁부연록>에서의 잔치는 흥겹다. 물론 그 안에 다소의 애조의 정조가 보이지만 중심 정조는 아니다.

이 잔치는 처녀, 총각의 집단무, 용왕의 <수룡음>, 궻 개사(郭介士), 현 선생(玄先生)의 노래, 요정들의 노래, 손님으로 온 세 수신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한생의 노래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내용상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수룡음>까지의 즐거움, 용왕의 명에 따른 궻 개사, 현 선생의 노래, 궁궐의 정령을 포함한 세 수신의 노래, 그리고 한생의 마지막 종결 노래이다. 네 단계로 나눈 것은 김시습이다. 김시습은 그 지표로 용왕이 희필어시(戲畢於是, 희학이 여기에서 끝나다)라고 한 부분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

잔치는 본래 흥겨운 것이고,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집단무와 세 수신의 노래는 상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용왕이 부른 노래와 궻 개사, 현 선생의 등장, 그리고 한생의 노래는 주목할 만하다.

<수룡음>은 영원하고 싶은 용왕의 욕망을 드러낸다. 인생은 빨리 흐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통쾌하게 살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통치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의식이다. 여기까지는 잔치의 엄숙한 흥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 뒤의 궻 개사와 현 선생 부분은 매우 희학적(戲謔的)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의 등장하기 전에 용왕이 한 말이다. <수룡음>을 노래하고 난 후 용왕은 이렇게 말한다.

歌竟 顧謂左右 曰 此間伎戲 不類人間 爾等爲嘉賓呈之(용왕이 노래를 마치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곳의 기예와 놀이는 인간 세상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귀한 손님을 위하여 드러내 보이도록 하라.”)

이 말은 궁궐에서의 유희는 그 밖의 공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어쨌든 용왕의 이 말 뒤에 바로 자칭 곽 개사, 현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기 전에 장황하게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한다. 먼저 곽 개사를 살펴보자.

僕巖中隱士 沙穴幽人 [···] 嗟濠梁之巨族 笑我謂我無腸 然可比於君子 德充腹而內黃(저는 바위 속에 숨어사는 선비요, 모래 구멍의 은둔자입니다. [···] 아! 물속의 거족들은 나를 속없는 자라고 비웃지만 나는 군자에 비할 수 있으니 덕이 속에 가득 차 속이 누렇다네.)

가전체적인 요소가 다분한 이 부분에서 곽 개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고는 자신 있게 나아가 노래하고 춤을 춘다. 하지만 자부심이 있던 그가 춘 춤은 ‘좌로 돌고 우로 꺾으며 뒤로 굴렀다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땅바닥을 구르면서 실소(失笑)하게 한다. 이는 현 선생도 다르지 않다. ‘산과 못에 혼자 사는 존재로서 수족의 어른으로 하나라 은나라 때부터 활약하였다’며 춤을 추지만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웃음거리가 된다. 이를 잔치의 흥을 돋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곽 개사, 현 선생이 주장하는 바와 만좌한 사람들이 보고 웃는 대조적인 모습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희필어시(戲畢於是)’가 나오면서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령들과 세 수신의 노래가 이어지고, 그런 노래를 본 한생이 글을 짓는 것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희(戲)’로 규정된 곽 개사와 현 선생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둘은 모두 바위나 모래, 산이나 못에 사는 은사(隱士)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매우 뛰어난 재주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이 용궁에 왔지만 그들은 그곳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특히 이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용궁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인물로 그리고 있다(羌今夕兮何夕 赴瑤池之霞觴 - 곽 개사, 羌伸頸而舉踵兮 預高堂

之宴席 - 현 선생). 그들이 춤추고 노래한 것은 용궁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 부분에 ‘한생’이 웃었다는 서술은 없다.

이 장면에서 ‘한생’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두 존재를 관찰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이 두 존재는 ‘한생’과 여러 면에서 겹친다. 인간 세상의 사람으로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은사적 삶을 사는 한생, 익숙하지 않은 공간인 용궁에서 압도당했던 한생, 용궁에서 재주를 드러낸 한생. 어쩌면 이 두 존재는 한생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잘났다고 아무리 우겨보아도 한생 역시 꼭 개사와 현 선생처럼 용궁의 고관대작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¹¹⁾

한생은 이미 그 속에서 용궁 생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용왕이 보여준 여러 시를 보고 화답한 시에서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시 앞부분에서 한생은 잔치의 성대함을 한껏 노래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구를 삼고 있다.

還如飡沈瀧 신선의 맑은 이슬을 마신 듯하고,
宛似到瀛蓬 신선이 사는 봉래산 영주산에 있는 듯하네.
歡罷應相別 허나 잔치가 끝나면 응당 이별이 있는 법
風流一夢中 풍류라는 것은 그저 한바탕 꿈속인 걸.

용궁에서의 생활은 마치 신선의 세계 속에 사는 것과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생은 그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한바탕 꿈같은 것임을 자각한다. 용궁 속에서 문재를 인정받아 환대를 받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 후 한생은 용궁을 유람한다. 용궁 유람 역시 〈수궁경회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용궁 유람을 한생이 용궁의 신이한 기구들을 감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한생이 유람할수록 용궁은 잔치가 열린 공간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공간이 된다. 일을 맡은 존재들이 있고, 기구와 제도 등이 갖추어진 용궁이 되는 것이다. 용궁을 유람하는

11) 이 부분을 권위의 파괴로 해석하기도 한다(전성운, 「〈용궁부연록〉의 연회와 서사전개」,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2009, 182-186쪽). 그 해석이 전체 논지에서는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두 존재는 모두 스스로 자랑하다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생에게 용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공간이 된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조원루(朝元樓)’, 쳐볼 수 없었던 ‘북’, 풀무질해볼 수 없었던 ‘풀무 같은 물건’, 물을 뿌려볼 수 없었던 ‘먼지떨이 같이 생긴 물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한생이 해보려고 하면 용궁의 사람이 제지를 하는 형국이었다.

使者止之曰 若一擊則百物震 卽雷公之鼓也 (안내자가 말리며 말하였다. “만약 한 번 치면 만물이 떨립니다. 천둥신의 북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雷公電母風伯雨師 何在 曰 天帝囚於幽處 使不得游 王出則斯集矣 (“뇌공, 전모, 풍백, 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제께서 그윽한 곳에 가두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용왕이 나오면 이에 모입니다.”)

이들은 항상 왕과 함께한다. 그리고 비, 바람, 우레, 번개 등은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한생은 백성의 삶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게다가 몇 리나 되는 회랑은 금빛 자물쇠로 잠겨 있어 더 이상 한생이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용궁은 한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고 만다. 그저 문재 하나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생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다. 그러자 한생은 스스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청한다.

여기에서 한생을 대하는 용왕의 태도는 <남염부주지>의 염왕의 태도와 대비된다. 박생은 염왕의 초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꿈속에서 그곳에 간다. ‘홀연히 큰 바다 가운데 작은 섬에 있는 한 나라에 이른(忽到一國 乃洋海中一島嶼也)’ 박생이기에 그곳의 사람들은 박생에게 덤덤하다. 염왕도 박생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는 한생을 초대하고 영접하는 용궁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곳에서 박생은 염왕과 자신의 이념과 이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토론을 한다. 그러고는 박생은 염왕에게 이치에 통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비록 이계에 가는 방식은 달랐지만 두 중심인물이 이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용궁부연록>과 <남염부주지>의 서사 전개 양상이 같다. 하지만 그 이후는 전혀 다르다.

염왕은 학생에게 ‘왕의 자리’를 제안한다. 염왕은 그곳에 사는 존재들이 모두 죄를 짓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도리를 알고 바르고 정직한 자만이 그들을 다스리고 교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왕의 자리를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계로 돌아왔던 학생은 죽어서 남염부주의 왕이 된다.¹²⁾

그런데 용궁에서는 한생의 귀환을 막지 않는다. 자신이 초청한 사람, 조금 전까지 문제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하였던 사람에게 ‘명주’와 ‘비단’ 같은 몇 가지 선물만 줄 뿐 어떤 제의도 하지 않는다. 용궁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한생에게서 뽑아 쓸 만한 것은 다 썼고 그에 따른 대가도 치렀다는 태도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한생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 돌아왔을 때, 인간 세계는 자신이 용궁을 가기 전과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용왕이 노자로 준 ‘명주’와 ‘비단’이 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기하였지만, 용왕이 노자로 준 ‘명주’와 ‘비단’을 한생이 지극히 소중한 보배로 여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지극한 보배로 여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용궁의 ‘명주’와 ‘비단’이 실제적으로 귀한 보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생의 태도를 보면 지극한 보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미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 다른 하나는 ‘명주’와 ‘비단’이 실제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생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생으로 하여금 ‘명주’와 ‘비단’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였는가? 이를 용궁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담는 것 정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해진다. ‘명주’와 ‘비단’은 용궁에서의 환상 체험을 환기시켜주는 기제이다. 아니 단순히 환상 체험뿐만 아니라, 환상 체험을 통한 자각까지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생은 특별할

12) 필자는 『금오신화』의 결말 부분이 큰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오신화』의 결말부는 크게 세상을 등지는 것(<만복사저포기>와 <용궁부연록>), 인간으로 죽고 마는 것(<이생규장전>), 죽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취유부벽정기>와 <남염부주지>)으로 나뉜다. 필자는 이것이 일단은 각각 김시습의 성찰, 의지, 바람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것 같았던 자신이, 그리고 처음에 용궁에서 보잘것없는 일로 그렇게 대접받았던 자신이, 용궁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갈수록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용궁에서 자기가 필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수용되지 못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자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는 것은 ‘명주’와 ‘비단’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로 ‘명주’와 ‘비단’은 이러한 모든 것을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명주’와 ‘비단’이 한생에게 지극한 보배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생이 세상을 등지는 결말이다. 용궁에 대하여 자각을 하였다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인간 세계 속에서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한생이 왜 굳이 세상을 등진단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은 용궁과 인간 세상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같은 이계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남염부주지>는 몽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용궁부연록>은 그렇지 않다. 즉, 남염부주는 박생의 꿈 또는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간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¹³⁾ 반면 용궁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한생을 부를 수 있는 공간으로 인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말을 타고 갔다가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 잠시 눈만 감고 있으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용궁이다.

한생은 이미 용궁 체험을 통하여 용궁에서의 자기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곳에 다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자각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궁에서 언제나 다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체험하고 자각을 한 한생이지만 그때마다 고민하고 머뭇거리야 할 것이다. 한생이 그러한 순환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다시는 부를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한생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한생의 모습은 김시습과 매우 닮아 있다. 주지하듯이 어려서부터 이름이 났던 김시습 역시 세조의 찬탈 이후에도 명성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김시습은 세조가 등극한 후 여러 차례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정병욱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였다.

13) 필자는 이러한 공간 설정이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김시습의 자각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효령대군의 상경(上京)하라는 청(請)을 받았을 때는 아직도 사환(仕宦)의 길이 늦지 않음을 깨닫고 서울에서 평생을 마치기로 작정하여 서울로 올라와 세조를 만나고 그의 은덕(恩德)을 찬양하며 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단 서울에 올라와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을 다시금 비판하고 분석해본 결과 그는 그런 현실을 저주하고 배격(排擊)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¹⁴⁾

사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출(出)과 처(處)는 현실 생활의 두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사대부들에게는 늘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는 김시습도 출과 처 사이에서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단을 그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

志士胸襟存節義 지사의 가슴에는 절의가 있고
 丈夫氣概立功名 장부의 기개는 공명을 세우려 한다.
 功名節義皆吾事 공명과 절의가 모두 내 일이거늘
 得失相傾恨莫并 득실이 서로 뒤틀리니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¹⁵⁾

靑草眠黃犢 푸른 풀밭 위에는 누렁이 잠자고
 蒼崖叫白猿 높은 절벽에는 흰 잔나비 울부짖는다.
 十年南北去 십 년 동안 이리저리 다녔으면서도
 岐路正銷魂 갈림길만 만나면 애를 태운다.¹⁶⁾

절의를 지킬 것인지, 공명을 이룰 것인지, 왜 그 둘은 서로 어긋나야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출처의 갈림길에서는 항상 애를 태웠던 김시습을 이 시에서 볼 수 있다. 결국 김시습은 항상 출과 처 사이에서 고민하였던 것이다. 그 고민은 세조의 부름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고귀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궁궐만 들어가면 김시습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의 공간과는 다를 것 같은 공간이 바로 궁궐이고, 그 속에서의 삶이다.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라면 그곳에서의 삶을 꿈꿀 것이다. 게다가 부름을 받는다면 그곳으로

14) 정병욱, 「김시습(金時習) 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홍성사, 1979), 49쪽.

15) 〈室漏歎〉, 『梅月堂全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53-54쪽. 이하 제목과 인용면만 표시한다.

16) 〈椴峴〉, 42쪽.

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곳은 이상적인 공간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비추어진다.

김시습은 궁궐에 갈 기회가 있었다. 김시습이 31세 되던 해, 원각사를 창건하고 행할 낙성회에, 효령대군이 세조에게 김시습을 추천하자 세조도 김시습을 부르라고 명한 때의 일이다.

余於是幡然改日勝會不常 盛世難遇 馳賀便回 以終餘年 卽剋日上京 以參嘉會 (내가 이에 변연히 고쳐 말하였다. “좋은 잔치 모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태평성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달려가 축하하고는 곧 돌아와 여년을 맞으리라.” 즉시 날을 다투어 상경하여 좋은 모임에 참가하였다).¹⁷⁾

또한 〈원각찬시(圓覺讚詩)〉를 본 세조가 다시 부르자 ‘병을 핑계대고 금오산으로 돌아오면서’¹⁸⁾ ‘성대한 연회(宴會)와 법사(法事)는 이미 끝났는데, 다시 부르심을 받아 가고자 하나 그것은 이미 내 분수를 넘은 것’이라며 가지 않는다.¹⁹⁾ 여기에서 우리는 〈용궁부연록〉에서 보이는 주요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낙성식에 참석한 것이고²⁰⁾ 다른 하나는 궁궐 방문이다.

하지만 김시습은 궁궐에 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물론 정병욱의 지적대로 현실에 대한 저주와 배격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김시습은 ‘궁궐 초대’에 깊이 고민하였을 것이고, 마침내 가지 않는 쪽을 택하기까지 심사숙고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속에 〈용궁부연록〉이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비록 다섯 살에 가보기는 하였지만 김시습에게는 궁궐이라는 공간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곳은 그리 편하거나 익숙한 곳이 아니다. 이는 김시습이 다 커서는 궁에 가보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다.

김시습은 궁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나아가지 않았고 끝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김시습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의지를 〈용궁부연록〉에 등장하는 한생의 용궁 체험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다. 김시습은 한생의 용궁 체험을 통하여 비록 자신이 부름을 받고는 있지만 자신 역시 궁에서

17) 〈圓覺寺落成會〉, 379쪽.

18) 〈圓覺讚詩〉, 380쪽.

19) 〈半途復命召回辭陳情詩〉, 380쪽.

20) 여기서 김시습은 〈圓覺讚詩〉를 지어 세조의 인정을 받았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없고, 궁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며, 궁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약간의 현실적 재물만을 남긴 채(그들에게는 면죄부 또는 정당성을 주며) 언제든지 그곳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또한 궁과 자신이 거처하는 곳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에 그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아울러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작품 속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서술이지만 용궁 속 용왕이 칼을 차고 있었다는 점도 예사롭지는 않다.²¹⁾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궁은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삶은 아름답고 밝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는 현실 속 궁궐에 대한 시선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생에게 <용궁부연록>에서의 용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는 김시습의 궁궐에 대한 인식과 다름없다.

김시습은 항상 마음과 세상일이 줄곧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 어그러질(心與事相反 <絃悶六首> 1, 志與時事乖 <自貽>, 世與身相乖 <山齋>) 수밖에 없었다.²²⁾ 이와 같은 괴리 속에서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통하여 자신의 의식과 판단을 표출하였다. 그 가운데 <용궁부연록>은 어려서부터 문제로 소문났던 김시습이 세조 정변 이후 궁궐의 부름에 대하여, 긍정 공간으로 보이는 용궁을 설정하여 한생을 통해서 환상 체험을 한 후, 궁궐이 자신의 지향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IV. 맺음말

필자는 『금오신화』가 기본적으로 김시습 자신의 의식을 담고 있으며, 현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였던 지식인의 자각과 성찰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용궁부연록>을 대상으로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용궁부연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생이 용궁에서 대접을

21) “신왕이 절운관을 쓰고 칼을 찬 채로 홀을 들고 내려왔다(神王戴切雲冠 佩劍乘簡而下)”는 기록에서 세조가 연상되기도 한다.

22) 진경환, 「‘달주’와 ‘해체’의 기획-매일당 김시습」, 『한국고전문학작가론』(소명출판, 1998), 180쪽.

받은 후 선물을 가지고 돌아와 소중하게 여기고는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용궁에서의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한생은 용궁에도 세상에도 머물지 않았는가?

〈용궁부연록〉의 한생은 이미 필요에 의하여 자신을 초청한 용궁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용궁에서 한생은 실상 그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을 안 한생은 그곳에 다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자각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용궁에서 언제나 다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에 한생은 그러한 순환을 막기 위하여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한생의 모습은 김시습과 매우 닮아 있다. 김시습은 세조가 등극한 후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다. 그때 김시습은 출처에 대하여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에 따른 행동의 지침을 드러낸 것이 〈용궁부연록〉이다. 김시습은 궁의 부름을 받아 나아갔을 때의 상황을 〈용궁부연록〉에 등장하는 한생의 용궁 체험을 통하여 예측하고 있다.

김시습은 비록 자신이 부름을 받고는 있지만 용궁에서의 한생과 마찬가지로 궁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없고, 궁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며, 궁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약간의 현실적 재물만을 남긴 채 언제든지 그곳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또한 궁과 자신이 거처하는 곳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에 그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생과 똑같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긍정 공간으로 보이는 용궁을 설정하고 한생의 환상 체험을 서술한 〈용궁부연록〉은 어려서부터 문재로 명성이 있었던 김시습이 세조 정변 이후 궁궐의 부름에 대한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함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참 고 문 헌

- 『金鰲新話』. 아세아문화사, 1973.
- 『梅月堂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김수연·탁원정·전진아, 『금오신화·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 박성의,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예그린출판사, 1978.
-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학술논총』,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152쪽.
-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嶺南語文學』 26, 영남어문학회, 1994, 123-124쪽.
- 윤채근, 「『金鰲新話』의 美的 原理와 反省의 主體」. 『古典文學研究』 14,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8, 162-174쪽.
- 이가원, 「『금오신화』 해제」. 『역주 금오신화』, 통문관, 1959, 7쪽.
- 이월영, 「초현실체험 분석을 통한 『금오신화』 연구」. 『국어국문학』 109, 1993, 129-150쪽.
- 이혜순, 「금오신화」.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집문당, 1990, 26쪽.
- 임치균, 『검은 바람』. 태학사, 1995.
- 전성운, 「〈용궁부연록〉의 연회와 서사전개」.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2009, 182-186쪽.
- 정병욱, 「김시습(金時習) 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49쪽.
- 진경환, 「탈주'와 '해체'의 기획-매월당 김시습」.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8, 180쪽.
-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6, 2003, 9-13쪽.
- 한영환, 「금오신화의 비교문학적 고찰」.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4.

국 문 요 약

〈용궁부연록〉의 주인공 한생은 용왕의 초청을 받았다. 이는 여러 차례 세조의 부름을 받은 김시습과 닮아 있다.

용왕의 초청을 받고 간 한생이었지만, 그가 용궁에서 한 일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안 한생은 그곳에 다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고는 용궁을 떠나기로 한다. 그러나 용궁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왕이 자신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생은 그러한 순환을 막기 위하여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다.

김시습은 비록 자신이 부름을 받고는 있지만 한생과 마찬가지로 궁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과 함께 궁과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용궁부연록〉에 투영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용궁을 설정하고 한생의 환상 체험을 서술한 〈용궁부연록〉은 어려서부터 문재(文才)로 명성이 있었던 김시습이 세조 정변 이후 궁궐의 부름에 대한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함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투고일 2011. 7. 9.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2.

주제어(keyword) 〈용궁부연록〉(*Yonggungbuyeonrok*), 한생(Hansaeng), 김시습(Kim Si-seup), 용궁(the palace of the Dragon King), 궁(palace), 환상 체험(illusory experience)